

“안중근’ 무게감에 처음엔 거절했죠”



“안중근 장군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이 작품의 마지막 촬영 신이었어요. 찍고서 거의 오열을 한 것 같아요. 어깨에 짊어진 압박감을 비로소 내려놓는 것 같았거든요.”

1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영화 ‘하얼빈’ 주연 배우 현빈(사진)은 크랭크업 당시에 떠오른 듯 다시 한번 감정이 벅차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우민호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고난의 여정을 걷는 안중근 의사를 연기했다. 눈발과 진창을 구르며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영화 40도의 추위에 공공 얼어붙은 몽골 흡스골 호수를 끊임없이 걷는 등 강행군 촬영 끝에 나온 작품이다.

그러나 현빈은 “체력보다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영화”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안중근 의사를 연기해야 하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빈은 처음엔 우 감독의 캐스팅 제안을 거절했다.

“워낙 존재감과 상징성이 큰 분이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사한 뒤에도 감독님이 조금씩 수정한 시나리오를 계속 보여주면서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더러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죠. 제가 연기자로 살면서 안중근 장군을 연기할 날이 또 올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연기해 보는 것도 큰 영광이고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빈이 연기한 안 의사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영웅 안중

영화 ‘하얼빈’ 현빈

이토 히로부미 저격 위한 고난의 여정 인물 존재감에 체력보다 정신적 고뇌 우덕순·김상현 등 동지들 희생 되새겨 시대극으로 역사 기억하는 일 계속돼야 아이가 자라면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

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자신의 판단 착오로 동료를 잃은 뒤 홀로 걸어가는 그는 쓸쓸해 보이기 그지없고, 거사를 앞두고 방 한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는 그에겐 고뇌와 고독감이 느껴진다.

현빈은 “안 의사가 ‘거사를 치르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좌절과 고민, 미안함, 죄책감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분이 남긴 말과 글을 토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상상하며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당하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빈의 눈빛과 숨소리를 통해 결연한 의지가 전달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앞둔 공포 역시 전해진다.

현빈은 이 장면을 소화하는 동안 두려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다.

“**(집행용) 두건을 얼굴에 쓰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남은**

동지들에게 모든 짐을 넘기고 떠나야 했던 안중근장군의 심정이 상상돼 저도 당달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험난한 여정에서 빠지지않고, 다른 사람들은 광복을 위해 계속해서 애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안 의사의 마음은 현빈이 영화 말미에 호수 위를 걸으며 읊조리는 내레이션에도 담겨 있다. 10년, 20년, 100년 동안 힘을 합쳐 싸우면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 내 용이다.

현빈은 “하얼빈 의거가 있고 나서도 35년이 지나서야 광복을 맞지 않았느냐”며 “하얼빈”은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영화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시작과 밑거름에 관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하얼빈’의 포커스가 안 의사에게 맞춰져 있지만, 우덕순(박정민), 김상현(조우진), 최재형(유재명), 이창섭(이동욱), 공부인(전여빈) 등 다양한 캐릭터에 고루 무게감이 분산된 이유로 안 의사뿐만 아니라 그의 동지 모두를 비추기 위해서다.

현빈은 “만약 우덕순이 거사를 실행했다면 지금 우리는 우덕순만을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안중근 장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동지와 이들의 희생”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역사도 잊게 되잖아요. 이런 시대극이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해주는 만큼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얼빈’을 보여줄 거예요. 아빠가 네 옆에 없던 동안 이렇게 훌륭한 분을 연기하고 있었다고 말해주려 합니다.”

/연합뉴스

김다현 “윤수일 ‘아파트’ 재건축”

리메이크 곡 발표... 영어 버전도 공개



‘트로트 소녀 가수’ 김다현(사진)이 윤수일의 동명 히트곡에 새로운 멜로디를 붙여 재해석한 ‘아파트’를 18일 발표하고 올 하반기 ‘아파트 열풍’에 가세했다.

김다현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영등포에서 열린 리메이크곡 발매 쇼케이스에서 “재건축한 새 ‘아파트’를 처음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윤수일 선배님의 원곡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재건축해서 180도 바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다현이 부른 ‘아파트’는 1983년 발매된 윤수일의 원곡 가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멜로디와 랩을 더했다.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사운드에 전자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졌다.

김다현은 ‘아파트’의 한국어 버전 외에도 글로벌 팬을 겨냥해 영어 버전도 발표한다. 추후 이 노래의 일본어·중국어 버전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다현은 트로트 음악으로는 이례적인 영어 버전에 대해 “로제 언니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거나 새로운 변화에 잘 도전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유, 美 빌보드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

빌보드 “각 분야 두각... 대체 불가”

가수 아이유(사진)가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에 올랐다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아이유는 빌보드가 국가별 대표 아티스트를 뽑는 ‘글로벌 넘버 원 아티스트 시리즈’에서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빌보드는 “아이유는 대체될 수 없다”며 “인기 높은 아이돌,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 연기를 잘하는 배우, 방송과 예능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호스트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많지만,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해내는 사람은 아이유뿐”이라고 호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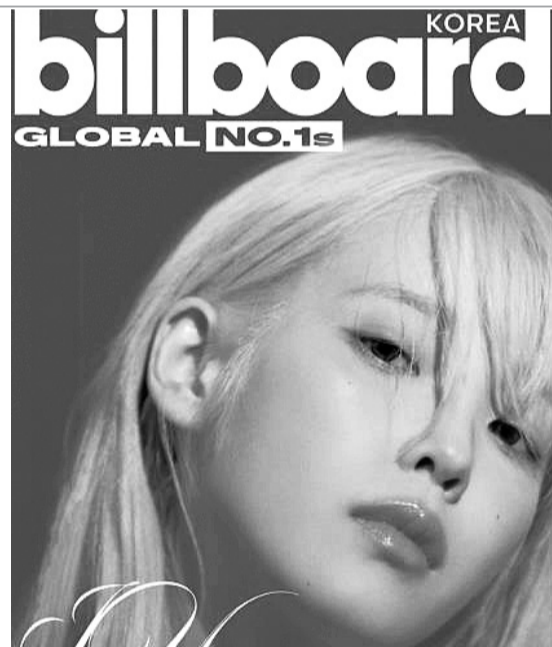
빌보드는 그러면서 ‘아이유’에 대한 K팝 팬덤과 한국 팬들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며 “그의 인기는 세대를 아우른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과와 공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빌보드는 아이유가 올해 히트곡 ‘러브 윈스 올’로 발매한 시간 만에 멜론 ‘톱 100’ 차트 1위를 기록하고, 4주 연속 주간 차트 1위·2월 월간 차트 1위 등을 달성한 점과 월드투어로 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사실도 소개했다.

빌보드는 “아이유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입성한 최초의 여자 가수이자, 국내 대형 스타디움에서 모두 공연한 최초의 여자 가수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내년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삭이다’ 공개를 앞두고 있다. 또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가제) 촬영과 음악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KBC광주방송, 류영현 부사장 대표이사 취임

KBC광주방송 류영현(사진) 부사장이 지난 13일 제11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1991년 세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류 신입 대표이사는 문화부장관 온라인뉴스국장직을 역임했다. 상명대 일반대학원에서 콘텐츠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인문콘텐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2018년 뉴스 통신사 UPI뉴스 편집인, 2021년 KBC광주방송 부사장 겸 서울광역방송센터장을 역임했다.

같은 날 임재영 전 KBC 광주방송 대표이사는 지주회사인 KBC 홀딩스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목포 출신으로 광주, 동국대를 졸업한 임 부회장은 지난 4년간 KBC광주방송을



이끌어 왔다. 1992년 KBS에 입사 후 KBC로 이직, KBC 플러스 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콘텐츠제작부장, 편성제작국장 등을 거쳤다.

임 부회장은 “경쟁이 치열해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KBC 광주방송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민생 경공매 연구소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 30년 대표 토목사 직강, 재건축 공부허용해당투자가능
총 40시간 수강료 200만원, 민법/집행법/행정법/기초의
기초~실전 유체동산 특강
☎ 010-7638-6918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탁월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 김기범 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